

광주 U대회 유치 결정 D-10

판세 분석과 광주전략

# 2차 투표 갈 듯... 유럽 13표가 승부 결정

광주, 러시아 카잔, 스페인 비고의 2013 하계 U대회 개최권이 최종 라운드로 접어들고 있다.

대회 개최지 결정을 위한 표결이 이뤄지는 31일 국제대학 스포츠연맹(FISU) 총회를 10일 남겨둔 현재까지의 판세는 광주와 카잔의 2파전. 초반 비교적 선전했던 비고는 사정권에서 멀어졌다 하는 게 전반적인 분석이다.

지난해말 유치전에 뛰어든 광주는 불과 5개월 동안의 득표전을 통해 대회 유치에 세번째 도전하는 카잔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등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안팎의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시의 자체 분석결과 광주는 아시아(7표), 아프리카(4표) 집행위원

## 스페인 비고 1차 탈락 예상 ... 광주 - 카잔 2파전

## 아시아·아프리카 표 단속, 동유럽표 공략 주력

들의 표를 확실하게 장악, 현재 11표 가량을 예약하고 있다. 여기에서 광주에 우호적인 미주 집행위원들의 3표까지 가세할 경우 FISU 집행위원회 1차 투표에서 승부를 결정지을 수도 있다는 낙관론도 나온다.

그러나 시는 FISU 집행위원들이 표결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지지의사와 표심이 연결되지 않은 사례를 보여줬다는 점을 감안, 1차 투표에서 승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한다.

시는 1차 투표에서 유럽 집행위원 6명이 스페인 비고를 지지할 것을 감안할 경우 광주와 카잔이 각각 10표 가량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2차 표대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유럽의 표심을 얻는 도시가 대회 개최권을 손에 넣게 된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것은 이 때문이다. 실제 27명의 집행위원들 가운데 유럽 집행위원은 13명으로 절반에 육박한다.

이에 따라 유치위원회와 시는 2차 투표를 승부처로 잡고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다. 개최지 결정까지 남은 10여일 동안 지지층인 아시아와 아프리카 표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유럽의 표심을 얻기 위해 총력전을 전개한다는 복안을 세웠다.

이회범 광주 U대회 유치위원장은 "아직 유럽측 집행위원들의 부동표가 많은 만큼 유럽의 표심이 승부를 가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남은 기간 유럽표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카잔에 우호적인 에스토니아, 폴란드 등 동유럽권 집행위원들의 마음을 돌리는 데도 공을 들이기로 했다.

박 시장이 21일 아프리카 지역 집행위원들을 접촉하기 위해 출국한데 이어 이회범 유치위원장을 비롯한 집행위원들이 일제히 유럽행 비행기를 타는 것도 이같은 전략 차원이다.

시와 유치는 그동안 해외 유치활동을 통해 수차례 접촉한 집행위원들의 표심이 투표결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스킴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까지 세번째 대회유치에 도전함으로써 동유럽표를 비롯해 지지표를 다수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아성"도 공략한다는 복안이다.

박광태 시장은 "수년 동안 선거를 치렀지만 유권자(FISU 집행위원) 27명을 대상으로 한 작은 선거가 어렵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고 있다"며 "매일같이 변하는 집행위원들의 표심을 단속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반드시 U대회 개최권을 광주로 가져오겠다"고 다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해외 공관·스포츠 인맥 총동원 유럽 위원에 개최 당위성 설득”

이회범 U대회 유치위원장



남은 기간 동안 최종 프레젠테이션(PT)을 완벽하게 보완, 집행위원들에게 감

“유럽표를 잡는 도시가 2013 하계 유니버시아드(U대회) 개최지로 결정될 것입니다.”

이회범 광주 하계 U대회 유치위원장은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집행위원회의를 11일 앞둔 20일 이같이 밝혔다. 오는 31일 열리는 FISU 집행위는 27명의 집행위원들의 표결로 2013 U대회 개최지를 결정하는 회의다. 대륙별로 유럽 집행위원은 13명이다.

이 위원장은 “결국 대회 개최를 놓고 광주와 카잔이 2차 투표까지 가는 혈전을 벌일 것으로 분석된다”며 “마지막까지 유럽의 부동표를 광주로 끌어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오는 27일 FISU 집행위원들을 접촉하기 위해 출국하는 그는 “해외 공관, 국내의 스포츠 전문가들의 인맥을 총동원해 유럽 집행위원들에게 광주 대회 개최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U대회 지원을 당부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광주 실사를 진행했던 FISU 실사단의 조언을 토대로

동을 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수차례 토론회와 대책회의를 통해 PT 내용을 보완한 만큼, FISU 집행위에서의 PT는 집행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8일 끝난 FISU실사에서 러시아 카잔이 U대회 경기장 기공식을 갖는 등 만만찮은 저력을 과시했다”며 “최종 PT 과정에서 분위기가 카잔 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책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들이 FISU 실사 과정에서 보여준 뜨거운 유치 열기와 성원을 개최지가 결정되는 벨기에 브뤼셀로 모아줄 경우 반드시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윤영기기자 penfoot@



김중훈 통상교섭본부장이 20일 오후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미 쇠고기 추가협의를 통해 합의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명문화 실패 시인 ... ‘즉각중단’ 힘들 듯

### ■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실효성 논란

### ‘국민 건강 위협’ 전제 ... ‘면피용’ 반발 여전

한미 간 추가 협의를 통한 수입중단 조치 서면 명문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 파동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사실상 명문화에 실패한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서면 효력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명문화 실패(??)=이번 서면 합의의 일부에서는 쇠고기 협정문이나 장관고시 등에 명문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합의내용의 명문화에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 지적을 하고 있다.

김중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기자회견에서 “진전된 구체적 내용이 없다” “어제까지는 명문화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부분이 명문화했다는 것인가”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저는 (수입금지조치를) 명문화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사실상 명

문화 실패를 시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또 문제는 입증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점. 김 본부장은 “우선 수입대표가 편지를 통해 GATT 20조와 WTO 동식물검역협정(SPS)에 따라서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서 각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또 “광우병 발생 건수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으로 인해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했느냐 하는 판단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거기에 대한 판단은 우리 정부 스스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면 효력=정부는 형식상으로는 짧은 편지에 불과하지만, 이 추가 합의 결과물이 사실상 지난 18일 타결된 한미 쇠고기 합의 이상의 효력, 즉 구속력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효력과 관련, “충분히 지켜져야 하고, 지켜지지 않으면 상당 정도의 이익을 제거할 수 있다”며 “국제법적 분쟁이 생기면 조항과 서문, 심지어 주해석까지 논쟁의 근거로 채택되는데, 이렇게 명확하게 장관급 서명을 담은 서한은 분쟁이 생길 경우 이의 없이 중요한 증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야당 및 지역시민단체 반발=차영 통합민주당 대변인 등 야당은 이날 “국민적 우려를 전혀 불식시키지 못한 면피용 조치에 불과하다”며 “본 합의문의 일점일획도 고치지 못한 검역권 명문화가 공수표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지역 2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특별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한·미 쇠고기 추가협약의 내용은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며 재협상을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PARKLAND**

파크랜드 감동선물 **커피** 전

정장 구매시 9개월 상당의 **[드레스셔츠 세트]**를 드립니다!

어름산상품 가격인하 **30~20%**

## “쇠고기 재협상이 진정한 한미동맹 강화”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

통합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20일 “진정한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광우병 위험 쇠고기 전면 개방 문제를 재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미쇠고기협상 관련 외신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인이 반대하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광우병 위험 쇠고기, 반미가 아니라 반 광우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동맹은 책임과 신뢰에 기반해 발전하는데 이번 쇠고기 파동은 이 같은 기반을 흔들고 있다”면서

“공동의 과제를 풀기 위해 힘을 합치고 상호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동맹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미봉책으로는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민의 촛불에 찬물을 끼얹을 수 없다”며 “국회는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재협상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외신기자회견 배경에 대해 “혹시 국민의 촛불이 이데올로기나 반미감정으로 폄하되지 않을까 걱정했고 학생과 국민이 광화문, 청계천에서 그리고 전국의 민주광장에서 촛불을 들게 된 마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